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사회 교리 주간)

2024. 12. 8(다해) / 제2129호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루카 3장 4절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사회 교리 주간)

입당송 |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 바룩 5,1-9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필리 1,4-6,8-11

복음 환호송 |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 루카 3,1-6

영성체송 |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1면 성화_정은정 아가다 作

음성지원QR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기도 안에 기다림의 조건이 담겨있습니다. “하느님, 저희가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얽매여있는 것을 풀고, 하느님 나라의 지혜를 청해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1독서 바룩서는 희망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이어 복음은 떨리는 기다림을 약속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제2독서 필리피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얽매여있는 마음을 풀고 하느님의 지혜를 청하는 이들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기와 같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천상의 지혜가 내려앉은 기다림의 두 번째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글 | 김동우 바오로 신부(교구 사무처 차장)



기쁨의 회개

글 |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분당성요한 본당 제1보좌)

“일단 인간의 이성이 균형을 잃게 되면, 인간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푸블리우스 타키투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율법을 따랐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이웃을 단죄하느라 자비하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영혼은 ‘굽은 곳과 거친 곳’으로 가득했습니다. 균형 잃은 그들의 신앙은 눈먼 이들의 인도를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 세례자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요한 세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 영혼의 굽은 곳과 거친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카 3,4-6).

이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나의 영혼은 얼마나 굽어 있고 거칠어졌는가?’ ‘나는 하느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

문들에 답하기 위해 제2독서를 살펴봅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필리 1,9).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단순히 내가 했던 행위들을 나열하고 심사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이기적인 사랑이 만든 굽어지고 거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느님의 사랑이 만든 곧은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균형 잃은 이성으로 나를 돌아본다면 우리 마음은 더 거칠어지지만,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 시간을 인간의 힘으로만 돌아본다면 막막함이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되돌아본다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번잡스럽고 바쁜 시기지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사랑 안에서 평온함과 침묵을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찾는 기쁨은 분명 우리를 새롭게 해 줄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 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제1독서. 바룩 5,1)

이혼하면 성체를 모시지 못하나요?

글 | 신정윤 라파엘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변호인)

매주 금요일 평일미사에 참례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미사 내내 울고만 계셨고, 성체도 모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몇 주 후 자매님과 면담 했더니, 이혼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생각되어 성체를 모실 수 없고, 또 주일마다 출근하느라 미사도 봉헌하지 못해 슬퍼서 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자매님은 성체를 모실 수 없는 것일까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매번 고해성사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혼만 하고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성사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볼 때 자매님은 이혼한 것이 아니라, 별거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매님께서 추후 재혼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주임신부님과 반드시 면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혼인을 한다면, 혼인장애 즉, 성사생활을 할 수 없는 ‘조당’(阻當) 상태가 됩니다. 조당은 신자가 혼인을 할 때, 교회에서 정한 법(교회법)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볼 때, 혼인장애 상태에서 맺은 불법적인 혼인으로 인한 동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고해성사, 성체성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매님처럼 직업적인 이유로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때에는 ‘대송(代誦)’을 봉헌하시면 됩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74조, 3-4항)에 따르면, “주일이니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

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신앙적, 신체적, 직업적, 환경적 이유로 미사에 참례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특별히 직업적, 환경적 이유의 경우, 대송을 봉헌하기에 앞서 신부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대송을 봉헌했다면 고해성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게으름으로 대송을 바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으름 또는 기타 사유로 주일에 미사 참례를 하지 못했다면, 대송을 봉헌했더라도 고해성사를 하시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교회(아버지의 집)는 늘 열려 있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인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앙적 어려움이 생긴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신부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위해 늘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오시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용기 내어 오늘부터 애쓰십시오.’**

(2베드 3,14 참조)



St. Lucia
_by Artemisia Gentileschi
_between 1636 and 1638_Private collection

가톨릭 교회의 찬란한 빛, 성녀 루치아 (축일 12월 13일)

글 | 백형찬 라이문도(전 서울예술대 교수)

“창공에 빛난 별/ 물 위에 어리어/ 바람은 고요히/ 불어 오누나/ 내 배는 살 같이/ 바다를 지난다.” 나폴리 민요 ‘산타루치아’입니다. 루치아(283~304)는 나폴리의 수호 성인입니다. ‘루치아’는 빛이라는 뜻을 가진 ‘룩스’에서 나왔습니다. 빛은 휘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나아갑니다. 루치아의 삶도 하느님을 향해 직선으로 나아간 삶이었습니다.

루치아는 이탈리아 시라쿠사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어린 소녀는 스스로 하느님께 동정을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루치아를 귀족 청년과 약혼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혈루증(하혈하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무서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루치아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가타 성녀의 무덤이 있는 성당으로 갔

습니다. 루치아는 어머니가 성녀의 무덤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덤에서 기도하는 중에 루치아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가타 성녀가 꿈속에서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축복받은 동정녀 루치아여, 루치아의 믿음으로 어머니 병은 나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루치아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병은 다 나았어요. 병을 낫게 해주신 하느님 이름으로 간청드려요. 저를 약혼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결혼 준비금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어머니는 루치아의 말대로 했습니다.

루치아와 약혼하려던 귀족 청년이 이를 알고 ‘그리스도 인이고 로마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루치아를 로마 집정관에게 고발했습니다. 집정관은 루치아를 법정에 출두시켰습니다. 집정관은 루치아에게 로마의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며 “우리는 로마의 법을 따른다. 너도 그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루치아는 “나는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므로 로마의 신은 믿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 행동한다. 당신은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하느님만 두려워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 난 집정관은 루치아에게 “너를 매음굴로 끌고 갈 것이다. 그곳에서 너의 몸은 더럽혀질 것이다.”라고 하자 루치아는 “성령께서 보호해주실 것이므로 나의 몸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어서 고문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루치아를 끌고가려 했지만, 그녀는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황소 여러 마리가 와서 끌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집정관은 루치아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루치아는 불에도 타지 않았습니다. 집정관의 부하가 루치아의 목에 칼을 꽂았습니다. 루치아는 목에 칼이 꽂힌 채 성체를 모시고는 하느님 곁으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은 같다.
다만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 디테일이 그를 구분할 뿐이다.” (헤밍웨이)



“주님, 저를 자녀로 받아주세요.”

글 | 정남희 데레사(망포동 본당)



세례를 준비하며



성모상 앞에서 단체 사진

남편 직장 때문에 살게 된 수원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 시간은 어떻게든 흘러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어느 날, 아파트 앞에 있는 작은 ‘망포동 성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이들과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많은 사람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가는 저곳은 어떤 곳일까? 왜 사람들은 활짝 웃고 다닐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느날 용기를 내 성당에 갔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곳에 발을 디뎠고, 그 이후 소중한 말씀과 이웃이 저의 여정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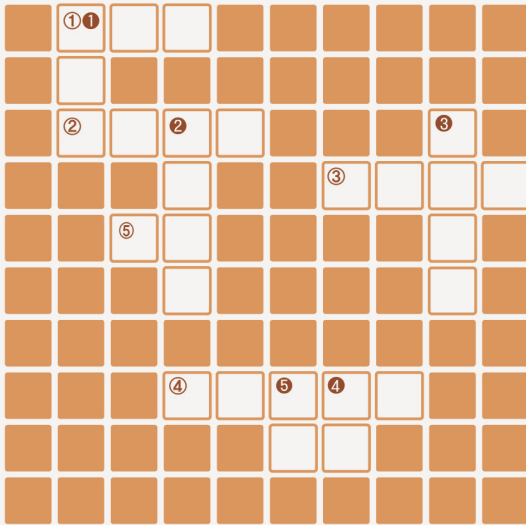
하지만 교리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제가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낯설기만 한 성당에서 함께 공부한 이웃들은 어느덧 가족처럼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감사하게도 무사히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하고 싶어 남편, 두 딸, 친정엄마까지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기뻐도, 슬퍼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를 당신 자녀로 받아 주시고, 좋은 이웃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외로운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인생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 세로 퀴즈

매 주일 퍼즐 조각을 모아보세요 ▶



● 가로 퀴즈

- ① 그리스도 구원 사업을 기념하는 축일들을 수록한 달력
- ② 예수 승천 후 사도들 행적을 기록한 책
- ③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이것'이 시작하는 대림 제2주간을 '사회 교리 주간'으로 지내고 있다. 올해 0000의 주제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이다.
- ④ 신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예언서이다. 이 성경은 종말의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구원의 계시'이기도 하다.
- ⑤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림 제3주일인 '00 주일'이다.

● 세로 퀴즈

- ① 죄의 유한한 벌인 잠벌을 모두 면제해 주는 일. 이것을 받으려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②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것을 '행복의 비밀이며 인류를 위한 메시지'라고 했다. '참행복(진복팔단)'이라고도 불린다. 루카 6,20~23 말씀.
- ③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책으로, '토마스 아 캠퍼스'가 썼다.
- ④ 다윗 임금이 예루살렘으로 가 점령하여 '다윗성'이라고 부른 곳. '주님의 도성'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00'이라 부르리라.(이사 60,14)
- ⑤ 명상과 비슷한 말이나,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기도 및 명상을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스워드 미



▲ 응모하러 가기

※ '7면 함께하기'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과 당첨자는 12월 15일자 주보 10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신원 베드로 作

관계라는데
오솔길과 같아서



왕래가 없으면



그 길이
사라지게 된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 특별헌금

12월 둘째 주일에는 「사제 양성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으니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과 함께 하는 찬양미사와 성체강복

일시 12.14(토) 11:00
장소 남한산성 성지 성당
문의 031) 749-8522 남한산성 성지

교정사목위원회 월례기도모임

일시 12.18(수) 10:30~16:00(점심식사개별)
장소 교정사목위원회 밝음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9번길 38)
대상 참여를 희망하시는분
준비 묵주, 미사도구
문의 031) 446-7909
사회복음화국 교정사목위원회

수원화성순교 성지 순례해설사 양성 교육

일시 25.1.19(주일)~2.23(주일). (6주간)
15:00~16:30
장소 수원화성순교 성지
문의 031) 246-8844~5 수원화성순교 성지

생태영성 월피정

일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0:00~16:30
장소 수리산 성지 고택 성당
비용 2만 원
참고 15명 선착순
문의 031) 465-8311
사회복음화국 생태환경위원회

상설고해소

복수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246-8844~5
성남동 성당
일시 매주 화요일 14:00~16:00
문의 031) 754-0409
중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441-3531
평택 성당
일시 매주 목요일 14:00~17:00
문의 031) 654-2702

미사·피정

하느님 자비의 사도모임

일시 12.9(월) 10:30
장소 분당성요한 성당(소성당)
내용 묵주기도, 성인유해친구, 강의, 성시간
성사, 미사(떡제공)
미사 장화기 신부
문의 010) 6212-4450
팔로티회(천주교사도직회)

여성연합회 송년 감사미사 및 특강

일시 12.12(목)13:00~17:0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대상 여성 신자
주제 구원을 위한 기다림
강사 김재덕 신부
미사 16:00 김태완 신부
미사 중 특별봉헌
비용 1만 원
계좌 신한 131-002-037976 여성연합회
문의 031) 242-1379
수원교구 여성연합회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영성피정

일시 12.9(월) 13:00~16:30
장소 수원교구청 2층 대강의실
대상 모든 신자
강의 한연흠 신부(미사)
문의 010) 9424-2701
수원교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체신심미사 및 월례회의
일시 12.17(화) 14:00~16:00
장소 수원교구청 2층 대강의실
미사 이견희 신부(성시간)
대상 전신자
문의 010) 5223-4840
수원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미리내 월요 성경 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10:00~15:30
장소 묵상의 집(미리내 성지 내)
지도 이관배 신부
문의 010) 4416-6445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II
일시 12.20(금)~22(주일)
성경완독
일시 25.1.2(목)~10(금), 2.14(금)~22(토)
문의 010) 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한라산 포함
일시 1.11~13, 1.16~18, 1.20~22
1.24~26, 2.1~3, 2.7~9
2.15~17(제주TS)
연말연시
일시 12.29~1.1(한라산 포함)
내용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 중)
문의 02) 773-1455, 064) 796-4182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제주 면형의 집 피정

한라산 포함

일시 1.17~19, 1.23~25, 2.8~10
2.14~16, 2.22~24

연말연시(한라산 눈꽃산행)

일시 12.30~1.2

성지순례

일시 3.1~4, 3.9~12

내용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

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문의 02) 773-1463, 064) 756-6009

제주 면형의 집(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교육·모집

수원가톨릭대학교 부설 하상신학원

2025학년도 신입생

교부 12.2(월)~25.1.10(금)

접수 25.1.2(목)~10(금)

시험 25.1.14(화) 14:00(면접)

참고 주 3일 수업(월, 수, 금)

문의 031) 290-8898

수원가톨릭대학교 하상신학원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2차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기관)

접수 25.1.6(화)~23(목) 17:00

모집 제1과정(예비과정) 철학/신학

62학점(수업료 학기당 100만 원)

제2과정(석사과정) 교회법

88학점

(수업료의 50%감면 장학금 혜택)

문의 02) 2164-6521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수원가톨릭청소년교향악단

신입 단원 및 파트 선생님

연습 매주일 14:00~17:00

장소 제2대리구청

대상 [신입 단원] 수원교구 신자

첫영성체를 마친 초4~대학생

[파트 선생님] 가톨릭 신자

해당 악기전공자(대학재학생 이상)

신청 이메일(goat_orchestra@naver.com)로

오디션 신청서 송부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4755-4414

수원가톨릭청소년교향악단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신입 단원

연습 매주일 13:30~16:00

장소 정자동 주교좌성당 4층

대상 37세 이하 신자·예비자. 전공 무관

참고 카카오플러스친구, 카카오프렌즈채팅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문의 010) 3214-0797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수원가톨릭합창단 반주자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전례 이해와

반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청 25.1.31(금) 18:00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8767-3735

수원가톨릭합창단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과정 입문, 중급, 바오로영성

방법 우편, 이러닝(동영상)

원서 https://uus.pauline.or.kr

문의 02) 944-0819~23 바오로딸 성경학교

기 타

제주·해외·한국성지167 성지순례

일시 1.7 나가사키 4일

1.13 베트남 나트랑·달랏 5일

1.21 태국·파타야 5일

2.6 스페인·포르투갈 12일

제주 성지순례 6명부터 출발

참고 www.michaeltour.co.kr

문의 010) 8650-9690 미카엘 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일시 3.17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

3.17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4.22, 5.6, 5.13, 5.20 이탈리아 일주 11일

5.19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참고 2025년 동반자 100만 원 할인 이벤트

가톨릭회관 619호

문의 010) 5235-3533 가톨릭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일시 25.3.30(주일)

내용 루르드, 파타마 순례 포함

산티아고 도보 순례 800km

비용 599만 원(+2100유로)

참고 catravel.co.kr

문의 070) 4086-0207 가톨릭트래블

성심여행사 해외성지순례

일시 25.3.31 출발

장소 성모 발현 성지순례 5일

베트남 라방·짜끼우

(대한항공 탑승)

참고 김현우 신부 동행

문의 010) 5909-5997

성심여행사

2025년 수원주보 신앙스크랩 공모

'사진 한 장'에 담긴 여러분의 짧은 추억을 들려주세요



▲ 참여방법

주 제 '사진 한 장'에 담긴 나의 신앙 추억

예) 여름신앙학교 때의 추억, 첫영성체날,

신부님·수녀님과의 추억 등

분 량 사진·한 장(사진 설명 필수)

원고- 200자 이내

접 수 culture@casuwon.or.kr

참 고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본당명, 이름(세례명),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여부는 주보편집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 의 031) 242-8081 교구 홍보국

국내 167곳

제주, 베트남, 마카오, 일본 성지순례

일시 국내 167곳, 제주 35만 원
 나가사키 3박 4일, 120만 원
 아키타 3박 4일, 145만 원
 북해도 3박 4일, 150만 원
 베트남 3박 5일, 120만 원
 과달루페성모(마추픽추) 10박 12일
 문의 010) 4239-1929 마르코투어

대전해수욕장 요나 성당(연수원)

내용 대전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 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방법 '요나 성당 연수원' 검색
 참고 yonaresort.modoo.at
 문의 041) 934-7758 요나 성당

꼬메스 심리 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담당 노경덕 신부
 문의 010) 3201-0520 꼬메스 심리 상담소

제주도 관광

내용 제주운전기사회에서는 가족, 단체
 골프 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 758-6476, 010) 4566-6476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채용·봉사자

본당 직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남한산성 성지 관리장 / 채용 시
 죽산 성지 관리원 / 채용 시
 시화성베드로 본당 사무장 / 채용 시
 초지동 본당 관리장 / 채용 시

봉사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과천 본당 지휘자 / 채용 시
 분당성마태오 본당 솔리스트 / 채용 시
 삼가동 본당 지휘자 / 채용 시
 신봉동 본당 반주자 / 채용 시
 이천 본당 지휘자·반주자 / 채용 시
 철산 본당 지휘자·반주자 / 채용 시
 평촌 본당 지휘자 / 채용 시

성 라자로 마을 '마을 카페' 봉사자

일시 토요일 오전 10:00~13:00
 토요일 오후 13:00~17:00
 대상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카페 봉사 경험자
 문의 031) 452-5655, 010) 6863-5655
 성 라자로 마을 카페

성소모임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대상 만 45세 이하 미혼여성(상시 상담 가능)
 문의 010) 9199-4995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교구 내 병원 원목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문의 031) 412-5447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문의 031) 787-1877

성남시의료원
 문의 031) 730-4501

아주대학교 병원
 문의 031) 211-5419

용인 세브란스병원
 문의 031) 329-7725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문의 02) 2610-9466

평택 성모병원
 문의 070) 5012-3679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문의 031) 8086-2970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평촌)
 문의 031) 380-4187



2025년 알림광고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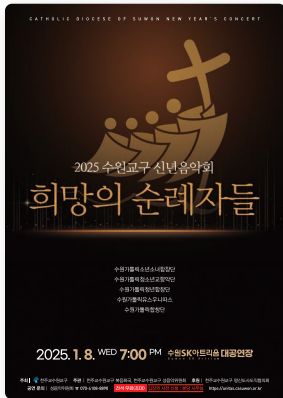
- 자 격** 소속 교구에서 정식으로 인준받은 단체
- 제출 서류** ① 소속단체증명서 : 연 1회 제출
 ② 여행사(성지순례) : 연 1회 서류(최근 3개월 이내 교적 사본, 사업자 등록증) 제출
- 내 용** ① 내용 : 미사, 피정, 세미나, 성소모임, 교육, 모집, 성지순례
 ※ 내용 수정 및 취소는 게재일의 4주 전까지 가능(이후 수정 및 취소 불가)
 ② 게재 횟수 : 동일 내용으로 월 2회 가능
 ③ 편집 : 홍보국 기준에 따름
- 비 용** ① 1줄당 1만5천 원(띄어쓰기 포함 15-20자 이내) ② 성소모임 2줄당 1만 원 ③ 제목, 연락처 포함 최대 10줄까지 가능
- 2025년 알림 광고 신청 일정(선착순 접수)**

신 청 일	광고 게재 월	신 청 일	광고 게재 월
1.2(목) 09:00	3 ~ 4	7.1(화) 09:00	9 ~ 10
3.4(화) 09:00	5 ~ 6	9.1(월) 09:00	11 ~ 12
5.1(목) 09:00	7 ~ 8	11.3(월) 09:00	2026. 1 ~ 2

6. 문 의 031) 242-8081 수원교구 홍보국

문화산책

신간 및 공연 게재신청 : 홍보국(hongbo@casuwon.or.kr)



2025 수원교구 신년음악회 희망의 순례자들

일시 25.1.8(수) 19: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비용 전석 무료

신청 본당 사무실

(입장권 사전 신청)

문의 070) 4108-8890

교구 성음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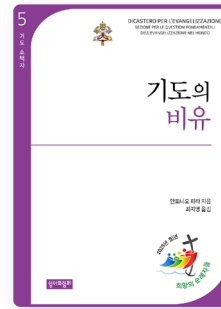


기도란

이 책은 간단명료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들에 답을 제시해 주는 안내서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느님과 더 깊고 굳건한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글 · 출판 | 바브 시스키에비츠 외
·성바오로

금 액 | 7천 원
문 의 | 02) 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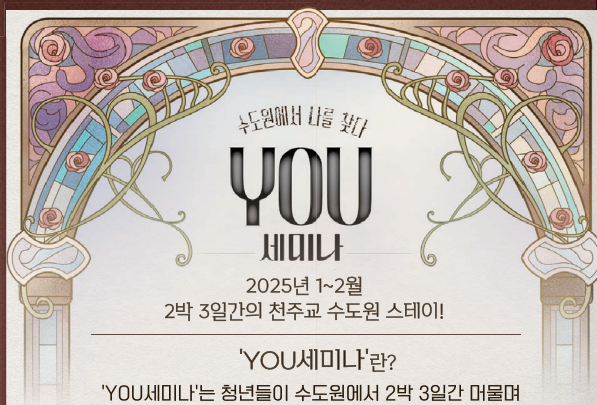


기도의 비유

이 책은 '비유'를 사용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의 독창성에 시선을 둡니다. 이 책에 소개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들은 기도 방법에 대한 실질적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글 · 출판 | 안토니오 피타
·성서와함께

금 액 | 1만 원
문 의 | 02) 822-0125



'YOU세미나'는 청년들이 수도원에서 2박 3일간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해 찾아가는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접수 2024년 11월 22일 ~12월 31일

참가요건 신자·비신자 상관없이
만 15세~35세 대한민국 청년·청소년

신청 및 문의 'YOU세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 'YOU세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

주최·주관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제12회 신앙체험수기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은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신앙 체험 수기를 공모합니다.

내용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거나 이웃에 전하고 실천한 사례,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이야기 등

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 50매 안팎 (A4 10포인트 5장 내외)

마감 12월 31일 (마감일 소인 유효)

보낼 곳 우편번호 04552,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30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신앙 체험 수기 공모 담당자 앞
이메일 soogi@cpbc.co.kr

문의 02-2270-2421~4 발표 2025년 2월 16일 가톨릭평화신문

주최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후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자세한 내용은 cpbc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